

과일케익 먹는 반달가슴곰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과일케익을 먹는 반달가슴곰들을 지켜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9년째 멈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년 공사 시작

JDC-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매각 당시 금액 581억원보다 3배 가량 많은 1480억원
녹지제주 인수대금 대부분 잔여 사업부지 등에 투자

10년 가까이 방치됐던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내년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8일 JDC 송석언 이사장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동건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녹지제주가 소유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와 미준공 건축물을 1480억원에 인수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JDC가 사들이는 토지는 녹지제주가 보유한 9개 필지 20만 4917㎡와 건축물 2개소로 JDC가 녹지제주에 판 가격 581억원보다 3배 가까운 가격이다.

JDC는 이번 계약으로 녹지제주는 인수대금 중 50% 이상을 잔여 사업부지(웰니스몰 7개소, 3만8225㎡)에 투자하게 되며, 공사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직원 신규 채용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재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DC는 또 자산 매입에 그치지 않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를 2027년부터 진행하고 미준공상태인 힐링스파 이럴호텔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 송석언 이사장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장기 정체로 직·간접적인 불편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제주도민과 지역사회에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제주도민과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환영받는 대표적인 '복합의료단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헬스케어타운 부지 36만㎡를 녹지그룹에 1079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뒤 9년째 방치돼 왔다.

투자는 약정액의 63%인 6360억 원에서 멈췄고, 고용은 3965명 중 125명(3%)에 그쳤다. 호텔·리조트는 미완공 상태이고, 워터파크·의료R&D센터 등 7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20대 구속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기프티콘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성 착취물 100여 개가 확인됐으며,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모두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소정기자

도로서 조경 작업 중 40대 신호수 차에 치여 숨져

도로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중 신호수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6분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중 신호수를 맡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PM 사고 감소… 자전거 2년 연속 사망사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PM 88건·자전거 143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여전

제주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교통법규 위반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최근 감소했지만 2년 연속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41건, 2024년 29건, 2025년 1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상자 수도 2023년 사망 1명·부상 42명, 2024년 사망 0명·부상 33명, 2025년 사망 0명·부상 18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은 여전히 적지 않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현황은 2023년 442건, 2024년 1120건, 2025년 520건 등이다. 지난해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02건(58.0%), 무면허 운전이 193건(37.1%)으로 95.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2023년 41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증가한 뒤 2025년 48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망자는 2023년 0명에서 2024년 1명, 지난해 1명으로 2년 연속 발생했다. 부상자도 2023년 45명, 2024년 55명, 지난해 5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5.2명, 자전거 9.9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두 이동수단 모두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2인 이상 탑승금지 ▷음주 후 운행 금지 ▷지정된 도로로 통행 ▷교차로 진입 전 감속 및 좌우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232명 적발

법무부, 두 달간 특별단속… 9월까지 3000명 입국 거부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에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과 상습 불법고용 사업주,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3103명에 대해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거나 입국목적 체류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 제주에 들어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제주 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체류·취업 알선 중개인(브로커)과 무단 출도, 무면허운전, 마약 등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벌이고 경찰·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 발권 시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